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3-93
----------	-------

발의년월일 : 2023. 6. 26.

발의자 :

신종갑,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김영미, 남해석, 백남환, 안미자,
오욱자, 이상원, 이한동,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국토교통부의 현행 “부천 대장지구~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철도계획에는 환승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제외되어 있으며, 추가역 신설 건립비용, 시간당 50km 규정 속도 등의 이유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추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기존 서울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및 공항철도 등을 갈아탈 수 있는 역으로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까지 확정될 경우까지 고려하면 5개 도시철도 노선의 복합 환승역이 됨에 따라 상암·성산·수색 등 서북부수도권 주민 20만 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암동 DMC 랜드 마크와 롯데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면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

다. 마포구의회는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설치에 대하여 철도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이송처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서울시 마포구

4. 붙임 :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

대장-홍대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추가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부천 대장신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 서울시 마포구와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일명 “대장홍대선” 광역 철도사업에서 서북부수도권 중심지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환승역 추가를 국토교통부가 철도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 구간 내에서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역은 “상암”, “성산”, “홍대입구역”으로, 서북부수도권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철도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우리 37만 마포구 주민은 분노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현행 “대장홍대선” 철도계획에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제외되어 있으며, 역 신설 예산의 추가 투입, 시간당 50km 규정 속도 등의 이유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추가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주요 방송사와 IT 기업 등 84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1일 유동인구가 12만명에 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서울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및 공항철도 등을 갈아탈 수 있는 역으로 신설을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까지 확정될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5개 철도노선 환승역으로 교통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장홍대선”의 예상 노선 중 마포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데,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제외하면 성산역과 상암역 사이가 크게 벌어져 미래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며 인근 서북부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출퇴근 등 서울특별시내 교통난이 크게 가중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대장홍대선 철도사업 노선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 환승역”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관련 기관에서는 대장홍대선에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추가 설치를 철도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관련 기관에서는 서북부수도권 중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건립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라.

2023. 06.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